

세계관

1969 년 7 월 16 일 아폴로 11 호 발사.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은 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은 한 사람의 작은 발자취지만 인류에게는 큰 도약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그 일순간이 인간이라는 종 자체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게 될 줄은...

A. A new hope?

- 인류가 최초로 지구 외 천체에 발을 디딘 순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이는 인류 전체에게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으로 남았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순간은 비단 인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었다.

B. The Last Orion

- 오리온. 그들은 1mm 즈음 되는 초소형 외계생명체로, 우주의 극한환경과 우주 방사선 노출에도 생존할 만큼 강인한 종족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문명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끊임없이 몰아쳐오는 강력한 태양풍의 여파로 달 표면수가 발생되어 그들의 문명에 큰 피해를 줬고, 인류가 달에 착륙했던 고요의 바다까지 도망쳐오게 된다. 하지만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었다. 오리온인들은 고요의 바다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달에게 비춰지는 태양 빛 때문. 태양 빛이 많이 비춰지지 않는 달의 극지방에서 살던 그들은 태생으로 하여금 흡수되는 빛 에너지가 300w 가 넘을 시 몸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종족의 멸망이 드리운 그 때, 닐 암스트롱의 역사적인 발걸음이 시작되었다. 초고도화된 문명을 지닌 오리온인의 입장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온 바, 지구는 그들이 살기에 적합한 행성으로 발탁되었고 오리온인의 지구 이주 계획은 실행되게 된다. 아폴로 11 호가 무사귀환 하며 오리온인은 1mm 즈음 되는 작은 몸집으로 은밀하게 지구에 착륙할 수 있었고, 인류와의 공생이 시작되었지만 머지 않아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바로 인류 “침략”과 “공존”이라는 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한 것.

C. The Phantom Menace, Herodo

- 지구 침략 찬성파의 이름은 <헤로도>이다. 그들은 종족의 영속을 위해 인류의 터전을 침공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달에서부터 삶을 지속해온 제 1 세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탄소 결합체로서 이루어져 있다.

D. The Thucydi strikes back

- 인류와의 공존을 선택한 반대파의 이름은 <투카디>이다. 이들은 오리온인이 지구에

터전을 자리잡고 번식하게된 2 세대가 대부분이며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탓에 새로운 변이가 가능하게 되어 탄소결합체의 몸을 갖게되었다.

E. Attack of the Herodo

- 투카디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로도들의 지구침략 계획은 2000 년도 1 월 1 일 00 시 00 분에 시작되었다. 그들은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는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모든 전력과 시스템을 점령하였고,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날짜 인식에서 오류를 일으켜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지구문명의 통제권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헤로도들은 초고도화된 문명의 힘으로 나노함대를 꾸려 남겨진 인류를 공격하였고, 이 공격으로 인해 인류의 절반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인류에게는 그 자신들조차 모르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으니...

F. Revenge of the Humankind

-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인류와의 공존을 선택한 <투카디>였다. 비탄소결합체에만 관여할 수 있었던 헤로도와 다르게 탄소결합체의 몸을 가진 투카디는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을 찾는 동시에, 인류를 위협하는 헤로도에 대항하기 위한 대책을 꾸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머리를 맞대 고민한 결과, 모계유전 법칙에 따라 미토콘드리아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인간 여성에게 기생하게 되었으며, 전 세계 각지의 소녀들은 두카디로 인해 특별한 전투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소녀들을 <아르테>라고 칭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된 오랜 교전. 인류는 쉽사리 죽고 늙어갔고, 지구에 남은 인류는 단 1%만이 남았다. 투카디들에게는 너무나도 광활한 지구. 작디 작은 그들이 정처없이 아르테만을 찾아다니기엔 불가능한 거리다. 그렇기에 투카디들은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고 그들은 답을 찾아내었다. 바로 아르테들에게 자신들을 이끌어줄 인간과 아르테들이 보이는 거리에서 나노함대발사를 위한 ‘좌표’를 찍는 행위였다.

3.2 스토리

달에서 온 그들은 자신들을 ‘오리온인’으로 칭했다. 1mm남짓 되는 생명체인 그들은 1967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당시 인류와 접촉했고, 아무도 모르게 귀환선에 탑승하여 지구에 착륙하였다. 그들은 지구 생명체의 일환으로서 조용히 살아갔다. 그러나 평화도 잠시, 그들 사이에 인류를 모두 멸절시키고 지구를 통치하려는 지구 침공파 ‘헤로도’가 등장했다. 대척점에 있는 지구 공존파인 ‘투카디’는 ‘헤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인류에게 나누어주었고, 그들의 힘을 계승한 자들을 <아르테>라고 칭했다. 하지만 아르테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99%는 절멸했다.

‘헤로도’들의 압도적인 힘에 밀려 ‘투카디’들은 특단의 조치인 <프로젝트 루카>를
실행하게 되는데...